

## 한국 한의학교육의 발전방안<sup>†</sup>

이선동 · 한용주 · 신규원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Ways to Educational Improvement of Korean Oriental Medicine

Sun-Dong Lee, Yong-Joo Han & Kyu-Won Shin

Dept. of Oriental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ersity

### Abstract

Problems and current situation of public health globally and domestically were analyzed in this study and based on these findings, ways to improve from western medicine and Oriental medicine can be deduced as follows:

1. Current problems of public health in Korea and the world
  - 1) Increase of diseases resulted from daily habits and infectious diseases, many are at the brink of being ill. Quality of life from extended life span and unbalanced health care must be solved.
  - 2) Natural and societal factors including host factors, public health service, and other external and internal factors play an important role in deciding healthy and being ill.
  - 3) Some of the limits and problems of modern medicine include insufficient academic knowledge and incomplete theory, as well as misled approach to the treatment. Human itself isn't perfect organism and other realistic problems hinder one's well-being.
  - 4) Regardless of western medicine or Oriental medicine, patients were approached as someone with diseases and disorders, and wholistic approach was disregarded. Lack of clinical training, absence of clear educational philosophy and goal are some of the reasons why the education isn't under concrete system.
2. Important factors for the medical education and proper direction for the education of Oriental medicine

\* Corresponding author : Sun-Dong Lee, Dept. of Oriental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SangJi University. Tel : 82-33-730-0665 Fax : 82-33-730-0653 E-mail : sdlee@mail.sangji.ac.kr

<sup>†</sup> 이 논문은 2003년도 상지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1) Important factors for medical education

- Education should not be limited on the human health and illness, but also cover qualities such as well-being, social welfare, service, and happiness. Every aspects of human life must be considered and attended for more productive outcome.
- Basic understanding of humanity must be included in the educational curriculum
- Foundation of human diseases and pain are associated with inner life and surrounding causes including family, society, nature, race, culture, religion, politics, and etc., thus the education must be approached to recognize aforementioned criteria.

2) Proper direction for the education of Oriental medicine

- Values of Oriental medicine for medical principles and importance of lifehood must be educated.
- Educational goal, limits, and levels must be established for the school of Oriental medicine
- Respect for life must be the top priorities of educational direction which should lead to solution based education for the human health. Latest medical theory and technology should be accommodated as well as prevention, treatment, and balancing of basic courses and clinical training for optimal education.

---

**Key words** : Educational Improvement way, Korean Oriental Medicine

---

## I. 서론

의학은 인간의 건강과 질병, 안녕, 복지, 봉사, 행복 등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과 관심을 통해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측면으로 바꾸어 놓는 예술<sup>1)</sup>이며, 의사는 이의 행위를 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그 동안 의학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인간의 질병과 죽음에만 주요 관심을 갖어 왔으나 최근에는 여기에 건강분야까지 포함하여 중요한 영역<sup>2)</sup>으로 삼고 있다. 저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건강과 질병, 죽음이외에도 안녕, 복지, 봉사, 행복과 불행 등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을 것이며 이러한 문제를 의학적으로 해결 할려고 할 것으로 추측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의학의 역사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의학의 눈부신 발전과 많은 의료인의 배출에도 불구하고 지구상의 환자는 늘어만 가고 있다. 생활습관병(만성 퇴행성 질병)과 SARS 등

전염성 질병의 증가,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삶의 질의 문제 등 다양한 질병발생은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측면으로 볼 때도 무언가의 의료 내부에 많은 문제점이 있음<sup>3)</sup>을 알 수 있게 된다. 왜 이러한 현상이 생기는가? 무엇이 문제인가? 저자는 세계적인 보건의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대로의 이러한 결과가 얻어진 과정을 설명하거나 증명하고자 하며 이를 근거로 한의학을 포함한 의학의 올바른 방향을 특히 교육적 측면에서 제시해보고자 노력한다. 저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분야에 관한 연구는 한의과대학에 존재하는 한 계속되어야 하며 이러한 노력이 쌓이면 지금보다 나은 의료서비스의 생산이 가능할 수 있게 되며 이러한 저자의 작은 노력이 한국 한의학 교육의 밑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은 크게 최근의 세계 및 한국인의 보건의료현실과 이를 근거로 일반적인 측면에서 의학교육의 중요요소와 주제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또한 한의학 교육의 올바른 방안을 내용으로 하였다.

## II. 본론

### 1. 최근 세계 및 한국인의 보건의료 문제

본 논문에서 한의학 교육의 발전방안에 본격적인 논의하기 전에 먼저 현재의 한국을 포함한 세계적으로 보건의료에 어떠한 문제가 존재하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최근 현대인 보건의료의 현실과 상황을 파악하여 발전방안을 도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1) 세계적인 보건의료 문제

##### - 생활습관병(만성퇴행성 질병)의 증가

각종 암(악성종양), 고혈압, 중풍 관상동맥 질환 등의 심혈관 질환, 당뇨, 비만, 불안, 초조, 분면, 우울증 및 기타 정신질환, 치매, 관절염, 기형아 그리고 만성피로 등 잘못된 생활습관, 무한경쟁 및 환경오염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것<sup>2),3),4)</sup>으로 연구되고 있다.

##### - 전염성 질병의 증가

AIDS, 식중독 등 수인성 및 식인성 세균질환, 말라리아, 조류독감, 그리고 최근 중국과 동남아 국가에서 크게 문제가 되었으며 최근에도 발생하고 있는 SARS같은 질병은 전에는 아예 없거나, 최근에 새롭게 발생하는 전염성 질환(resurgence problems)이 문제<sup>5),6)</sup>가 되고 있다.

##### - 대다수의 건강허약자 존재

건강과 질병사이의 관계로 최근에 의학적으로 관심의 대상인 건강허약단계(일명 未病단계, 또는 臨床 前段階(preclinic phase, 건강을

제1단계, 질병을 제2단계라고 하며 건강허약 단계를 제3단계라고도 함)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세계 인구의 1/2정도를 차지<sup>7)</sup>한다. 보통 평소와 달리 자신은 피롭고 힘들며, 또는 피로하거나 통증이 있어서 걱정되어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도 아무런 질병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이 단계에 해당된다.

##### -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건강수명(삶의 질)의 문제

과거와 달리 평균수명이 70~80세로 크게 증가하면서 노인인구의 증가와 노인관련 보건의료 문제해결이 세계적인 문제 중의 하나이다. 최근 몇 십년동안에 평균수명의 증가와 경제적 수준이 향상으로 인해서 건강한 삶에 대한 강한 욕구 등으로 삶의 질 문제가 세계적으로 대두<sup>8),9)</sup>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의학적 대처방법이나 처치법이 없는 형편이다.

##### - 사회적인 건강불평등문제 심각성

잘못되거나 왜곡된 의료제도나 사회적 빈곤과 차별(성, 민족, 계층간)등으로 아예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세계인구의 80%나 차지하며 그러나 세계인구의 85%가 가장 기본적인 1차보건의료 혜택만 받으면 치료할 수 있는 병으로 고생하고<sup>2),10)</sup>있다. 현실이 이러한 대도 불구하고 의료의 관심과 발달은 고가급위주의 발달로 인한 의료비가 크게 상승하고 있으며 대다수의 빈곤층들은 더욱 의료이용에서 멀어져가고 있다. 이것이 세계의료의 dilemma이다.

#### (2) 한국의 보건의료문제

한국도 예외는 아니 여서 위 [(1) 세계적인 보건의료 문제]의 모든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오히려 많은 나라들에 비해서 오히려 상당한 부분에서는 조건이 더 안 좋다. 결과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세계보건 2000에 의하면 한국

인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건강수명이 62.3세로 세계 81위이며 의료수준은 세계 58위, 의료혜택의 공정성은 31위, 국민건강수준은 107위 정도<sup>11)</sup>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한마디로 평균수명은 선진국 수준이나 건강수명과 수준의 후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는 서양의학을 전공한 의사, 세계적 민족의학 수준을 자랑하는 한의학을 전공한 한의사, 이외에도 많은 약사들과 비제도권의 유사의료업자들이 있는 데도 왜 이러한 수준정도인가? 의료인 수나 종류 등 이러한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이라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국인들의 건강수준과 수명은 상당히 좋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서양의학이나 한의학과 기타 보건의료분야가 크게 발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환자 발생율이 증가하고 불치 및 난치성 질환이 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과정에서 의학의 역할은 무엇이며 제대로 그리고 올바른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의학과 의료인 입장에서 볼 때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2) 인간의 건강과 영향요소와 질병발생에 미치는 요인

최근까지 확인된 인간의 건강과 질병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표 1과 같다. 크게 인

간의부적인 요소인 사회 및 자연적 요소, 인체 내부적 요소, 완벽하지 않는 의료기술이나 서비스과정 의료인들의 기술 및 도덕적 수준 그리고 최근에 관심의 대상인 태내환경으로 인한 태어난 뒤의 질병발생 등이 중요한 요인들<sup>12)</sup>이다.

이것은 인간의 건강을 관리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이 의료인들의 직접적인 의료행위 이외에도 상당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며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의미이다. 다시말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인간의 건강과 질병 발생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어떠한 영향을 반드시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과 근거는 의학교육과정에서 반드시 참고 되어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좀 더 완벽하고 완전한 의학교육은 인간의 생명에 미치는 긍정 또는 부정적인 모든 영향요소를 가르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3) 현대 의료의 한계 및 문제점

의료의 직접적인 조치 이외에도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매우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의 의미는 의학이나 의료인들

Table 1. Multi-factorial Relationship of Health and its Determinants

질병요인	관련세부요인
환경요인	사회적 요소 : 정치·경제, 문화, 종교, 법·제도, 교육, 차별(성, 인종, 직업, 나이 등), 실업, 빈곤, 전쟁, 폭력
숙주요인(내부요인)	자연적 요소 : 기후·계절, 작업조건, 사고·재해, 유해 및 유독물질,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기생물
보건의료요인	잘못된 습관(행위), 유전, 영양, 정신 및 영적(성격, 심리 및 정신적, 철학, 가치관, 자존심, 의식(사고))
기타요인	의원성 및 약원성 질병, 보건의료관련제도, 의료인의 실력과 경험, 의료인의 윤리 및 도덕성 정도
	태내환경(자궁환경)

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인간의 건강 또는 질병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뜻이다. 여기 내용에서는 현대의료가 갖고 있는 자체적 한계와 문제점을 알아보려고 한다. 이러한 목적은 정확한 의료의 수준과 현실을 파악하여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과 불필요한 또는 필요이상의 의학적 기대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1) 의학의 학문적 수준이 낮음

현대 의학의 학문수준이 낮다는 의미를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인간의 생명현상(또는 생명의 본질)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실질적으로 인간의 생명현상은 매우 복잡하며, 동시다발적이고 순차적이지 않다. 그리고 끊임없이 변하며 또한 인간 각자의 고유한 특성과 개성이 존재하고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이처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이 동시에 각기 다른 기능수행을 하고 있다면 또한 이들은 모두 신체내부의 환경을 일정하게 내부환경을 유지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다.<sup>13)</sup> 따라서 전문가들은 서양 의학은 초보적 과학수준이며, 한의학은 경험의학 주순이라고 진단하기도 한다.

- 기존의 의학이론도 완벽하지 못함

“Medicine is ever-changing science”<sup>14)</sup>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의 SCI발표논문의 90%는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기존의 의학이론이 완벽하지 못함을 단적으로 증명한다. 얼마전 유명신문의 의학전문기자<sup>15)</sup>는 현재 의료 지식 중 절대 불변의 진리는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것과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두 가지뿐 이라고 지적한 적이 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는 매우 역동적으로 끊임없이 의학이 발전되어 고대의 이론이 폐기되고 좀 더 나은 가설과 새로운 이론이 정립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제까지 배웠던 의학 교과서 내용이 자주 바뀌어진다면 어쨌든 기존의 의학이론이 이미 결점이 있거나 완벽하지 못한 탓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학문의 발달 측면에서 어쩌면 필연적으로 반드시 겪어야 할 개연성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의학 연구의 학문적 배경이나 바탕 그리고 철학면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2) 잘못된 의학적 접근

현재까지 의학은 환자나 몸의 일부 아픈 부위만을 의학적 대상<sup>2)</sup>으로 삼아왔다. 또한 건강을 유지관리하고 보호하는데 관심보다는 병이 난 뒤에 관여하는 치료의학 중심의 처치를 해 온게 현실이다. 의학적 입장에서 볼 때 다행이도 최근에 환자라는 인간 전체속에서 이해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sup>16)</sup> 환자입장에서 볼 때는 몸등아리(육체)병이든 마음과 정신관련 병이든 아니면 다른 병이든 전체속의 일부분일 뿐이며, 일부분의 고통이 전체에 영향을 미치며 또한 전체가 일부분에 상호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처럼 인간은 유기체적 동물이며 사회와 자연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상호의존(web of life)<sup>17)</sup>하고 있다. 좀 더 온전하고 넓은 측면에서 볼 때 그동안 국소적 부분만을 치료했던 의학적 접근은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다.

(3) 인간은 불완전한 생명체

이것은 Darwin의학적 견해로 인간은 원래부터 완벽한 설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생명체가 아니 다는 것<sup>18)</sup>이다. 즉 불완전한 생명체일 뿐이다. 이것은 선택적 진화(자연선택설)의 이론에 근거하는데 이는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 생명체를 만드는 게 아니다. 진화적 적응도를 극대화하는 생명체를 만들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우리의 몸을 완벽한 설계의 산물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그러나 완벽하게 설계된 듯 보이는 많은 것들은 사실 생명의 기원에서부터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역사적 산물일 뿐이다.

(4) 그 동안의 의학적 효과가 상당부분 과장·확대되어 왔음

현재에도 보건의료관련 방송과 신문 속에는 많은 의학소식이 실려 있다. 이 속에는 실질적인 소식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의학의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 및 강화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음은 우리는 주지할 수 있다. 의료 자체적 속성과 다수인의 관심과 시선은 끌기 위한 Mass-Media의 기본적인 존재이유 등이 서로 결합되거나 부가되어 그 결과로 많은 의학적 지식이나 결과가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sup>19)</sup>. 예를 들어 가끔씩 세계적으로 큰 반향이 있는 삼쌍둥이 수술은 고난도의 수술과정을 통하여 온전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학적 성과를 말할 것도 없지만 이러한 한 사건을 통하여 일반인들은 서양의학으로 꾸는 병이든 수술하거나 치료하면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더 나아가 마법의 탄환(magic bullet)을 상상할 수 있게 된다. 일반 개업의 한의사들이 경함하듯이 한방 과정은 인기 drama가 방영되면 평소에 비해 환자가 늘어나며 또한 drama에서 보았던 놀라운 치료효과를 요구하는 환자 또한 증가한다는 것을 보고도 알 수 있다.

(5) 의학적으로 볼 때 직접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요소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과 반환경적 기술수준으로 인한 환경오염물질 및 독성물질 등 건강유해물질의 증가,<sup>20)</sup> 심화되는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성,<sup>21)</sup> 인구증가,<sup>22)</sup> 전쟁 및 폭력은 현대인의 안전한 삶과 건강을 유지 및 증진<sup>23)</sup>시키는데 많은 위협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이런 요소들은 의료 및 의료인의 범위 내에서 직접 통제 가능하거나 해결이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현재 의료의 한계와 문제점 측면에서 저자 나름대로 요약해 보았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좀 더 온전한 인간의 생명유지와 관리,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서는 의학과 의료인 뿐만 아니라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요소, 산업 및 노동과 환경적인 요인 등 많은 분야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즉, 현실적으로 인간은 모든 질병이나 불행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건강유토피아, 즉 건강이라는 환상(mirage of health)을 좇고 있을 뿐 얻을 수는 없다<sup>24)</sup>는 것이다. 건강을 위한 최선책은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4) 현재 의학(교육)의 현실

여기의 내용은 현재 의학에 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사실이거나 이미 논의되었던 내용들이다.

(1) 서양의학측면

지금까지 서양의학의 의학적 현실은 환자를 단지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 치료나 관리에 있어서 부분적으로 또는 신체기관별로 접근하거나 인간의 육체중심의 의료행위를 해왔다. 이외에도 사회나 자연과의 관계를 무시하거나 무관심했거나, 각 인간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몸을 모두 같다”라고 여기거나 인간의 생명현상을 단지 물리·화학적으로만 설명하려는 객관적 환원론적 생명관을<sup>25),26)</sup> 갖고 있다.

(2) 한의학 측면

한의학 교육에서도 서양의학과 많은 측면에

서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외에도 교육의 학문역할을 담당하는 교수수가 너무 적거나 자질부족, 교육 및 연구시설의 문제들, 그리고 기초, 임상, 기초와 임상간의 체계적이지 못한 교육과정 등<sup>27-30)</sup> 수 없이 많다.

Table 2. Hard Fact of Education for Western Medicine

---

- 환자를 단지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
- 의학적으로 부분적 또는 신체기관별 접근
- 몸(육체)중심 또는 관심
- 인간과 사회나 자연간의 관계를 무시하거나 무관심
- 생명현상을 단지 생물학적 현상으로 설명
- 객관적 환원론적 입장
- 부분의합은 전체이다
- 과학적 의술 또는 의학
- 의학의 권력화

---

이러한 많은 문제점의 중심에는 한의과대학 교수와 학교당국, 기술 중심의 의학 공부를 원하는 학생들이 있다. 이중에서도 교육에 있어서 교수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지금까지 한의학 역사에서 교수들이 일정한 공헌과 역할을 담당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서양의학을 전공하는 의과대학교수들과 상대적으로 비교해 볼 때 연구능력 등 교수 자질 측면에서 지금보다 더 발전하고 개선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양방에 비해서 한의학의 이론 및 임상적 분야에서 학문적으로 lead해 나가는 정도가 매우 약하기 때문이다.

## 2. 서양교육의 일반적인 중요요소 및 한의학 교육의 올바른 방향

### 1) 의학교육의 중요요소

#### (1) 일반적인 의학의 목적 및 접근 방법

##### ① 일반적인 의학 목적

의학의 목적은 인간의 건강, 질병과 죽음, 안녕, 복지, 도움, 봉사, 행복 등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과 관심을 통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측면으로 바꾸어 놓는 예술<sup>1)</sup>이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사람의 건강, 질병 및 고통의 제문제를 감소시켜 주거나 해결해주는 분야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의학의 목적의 인식과 강조는 의학교육의 출발선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총론적으로 의학의 의미와 범위, 의사가 해야 할 일 등을 규정하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지적했지만 그동안 의학은 질병이 발생한 뒤에나 관여했으며 그것도 국소 부위중심의 몸(육체)위주를 해결하려고 해왔다.

Table 3. Hard Fact of Education for Oriental Medicine

---

- 교수 수 및 연구인력 부족
- 교수요원의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함
- 교육 및 연구시설(실험 및 실습실)의 문제
- 병원실습의 문제
- 체계적이지 못한 교육과정
- 불분명한 교육목표 부재
- 중국의학의 여과 없는 수용으로 자주의학정신을 계승하지 못함
- 임상이론과 기초이론의 불균형(교육의 불균형)
- 학문용어의 통일성 문제
- 위우기식 교육 강요
- 이론 강의, 실험 및 실습(병원실습)의 불균형
- 서양의학적인 방법론의 무분별한 도입
- 교육목표, 범위 및 수준설정의 미흡
- 교과서 문제
- 교수 중심의 교육
- 교육내용과 시간이 각 교실 및 교수 중심
- 학생의 임상기술 중심 교육 관심과 요구
- 지역사회 연계 교육 부족
- 핵심과목과 비핵심과목의 구별이 없음

---

Table 4. Progression of Public Health

과거	현재 및 미래
질환(질병)	→ 건강
병원	→ 지역사회
급성	→ 만성
치료	→ 예방
개입	→ 감시
치료	→ 간호
환자	→ 인간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의 의료변화 방향은 건강 및 지역사회, 치료보다는 예방조치, 직접적인 개입이나 치료보다는 감시나 간호를 중시하여 의료의 대상을 환자보다는 한 인간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있다<sup>31)</sup>. 따라서 의학교육의 방향도 과거에 비해서 이러한 세계 의료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② 접근방법

의학은 좁게는 인간의 건강, 질병과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개입하지만 좀 넓게는 이외에도 안녕 복지 도움, 봉사, 행복 등 인간의 삶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요소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감소시키는 분야<sup>1)</sup>라고 할 수 있다. 다르게 말하면 폭넓게 ‘의학은 인간학’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나 의학교육의 사람은 인간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즉 인간의 본성의 이해, 인간적 의미, 환자라는 인간 전체 속에서의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sup>13),32)</sup> 다시 말하면 인간적 의미와 본질 등을 고려하지 않거나 구체적인 관심을 갖지 않고는 인간의 질병이나 고통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할 수 없다. 환자를 단지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써가 아니라 온전한 개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해야 하며 환자가 안고 있는 임상적 문제들을 신체기관 별도가 아니라 환

자라는 인간 전체 속에서 이해해야<sup>33)</sup>한다. 왜냐하면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고통문제는 사회적 고통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학은 인간의 삶의 모든 분야를 아우러야 한다.

(2)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필요

인간의 질병이나 고통의 근원은 한 인간의 내면세계 및 삶 전체와 연관을 맺고 있으며 그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들, 사회전체 및 자연과 민족, 문화 종교 정치 지리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즉 인간의 질병은 단순한 하나의 신체질환이 아니라 총체적 고통(suffering)이라는 의미이다.<sup>34)</sup> 그저 생화학적 요소가 복잡하게 결합된 개체가 아니라 생물, 심리, 사회 및 문화적인 총체이며 각각 감성적 사회적 신체적 개념적 차원을 동시에 갖고 있다.<sup>35)</sup> 이처럼 인간은 ‘모든 층위를 포함하는 복잡성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인간의 문제를 과학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실제간 의학의 15~25%만이 과학적인 것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36)</sup> 이러한 예도 불구하고 의학교육에서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의 이해와 연구 노력이 너무 미미하거나 아예 무관심한 형편에도 어찌면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파악 노력의 무관심과 부재는 의학교육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다.

(3) 의학의 치료대상 및 범위

의학의 대상 즉 치료대상은 질병인가, 몸인가, 환자인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기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의학적 생명관과 관련된 문제이며 의학적 관여 범위를 나타내기도 하고 의료인의 관심의 대상에 대한 답을 줄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특히 과거의 의학은 몸(육체)중심의 의료였으나 치료들이 육체 뿐만 아니라 정신(마음), 영적 영역까지를 의학의 범위에 포함<sup>37)</sup>시키고 있다.



아마도 미래에는 1차적으로 몸과 정신과 영적 측면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이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본다. 왜냐하면 의학 대상은 질병이 아니라 환자이며 의사는 질병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환자 전체(전부)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기 때문에 의학의 범위를 인체 내부적 요인과 사회, 자연적 요소, 문화 정치적 요소 그리고 기타 인간의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가 되어 한다. 따라서 온전한 의사의 역할도 직접적으로는 인간의 신체적, 그리고 심리적 영적 문제의 해결과 감소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며 이외에도 사회적 및 자연적 요소를 직·간접적으로 해결하거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이상은 한의학과 서양의학 그리고 기타 의학교육을 하는데 일반론적 측면에서 알아보았다.

## 2) 한의학교육의 올바른 방향

한외과대학은 세상의 많은 의학 중에 특히 중국 등 동북아시아 중심으로 최근까지 계속 발전되고 있는 전통의학을 전문적으로 교육하는 곳이다.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세계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오고 있는 서양의학을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많은 민족의학(전통의학)이 존재한다. 각각의 의학은 의학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정신 및 철학 치료수단 등을 다양하게 갖고 있다. 따라서 한외과대학에서도 이러한 교육이 필요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한의학을 전공하여 한의사 면허를 갖고 있으면서 서양의학적인 생명관과 치료적 접근을 한다면 진정한 한의사가 아닐 것이며 그러한 것이 교육과정에서 비롯됐다면 큰 문제이다. 또한 한외과대학은 실력 있는 의료인 양성이 최종목표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환자의 올바른 질병 치료를 해주며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할 수 있는 교육의 필요성도 중요하며 교육의 대상자인 학생들의 요구를 파악하여 가능한 수준의 실질적인 반영 노력을 현대 교육

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한외과대학 6년 동안에 한의학 모든 것을 다 가르칠 수 없으며 졸업 후 장래진로가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동기도 다양해서 의학의 특성상 평생교육이 계속되는 스스로 공부방법도 반드시 익힐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적 출발전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 (1) 진정한 한의사 배출

#### ① 한의학의 의학정신 추구 및 계승 필요<sup>38)</sup>

##### - 건강중시

건강관리(養生, 攝生)와 건강허약 상태를 잘 관리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聖人, 良人, 上工이라고 하며 최고의 의사로 칭하고 있다. 황제내경 소문 <사기조신대론>과 <역순편>에 “聖人不治已病, 治未病”, “上工治未病 不治已病”은 한의학이 지향하고자 하는 학문정신이며 또한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sup>39)</sup>을 갖고 있다.

##### - 하나의 온전한 생명체를 기본 생명단위로 보는 생명관

‘부분의 합이 전체이다’는 서양의학적인 생명관과 다르고 한의학은 완전한 생명체가 하나의 기본 생명단위 라는 생명관을 갖는다. 생명체 전체가 그대로 기본 생명단위라는 의미이다.

##### - 天人相應사상

인간의 건강유지와 질병을 치료하는데 사회적 요소와 자연적 요소, 더 나아가 우주까지 서로 상관적이며 상호의존적인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 이 같은 사고방식이 한의학의 개념체계이다.

##### -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

모두 같은 인간들이지만 어린이와 노인, 여성과 남성, 건강한 사람과 환자 등의 다양한 개인적 차이를 인정하며 개인에 맞는 치료를

한다. 이것을 개체성, 차별성, 또는 체질이라고 한다.

- 조화와 균형을 강조

육체와 정신, 인체 臟腑間의 기능적 균형유지, 인간과 사회, 자연, 인간과 인간, 음과 양 등 모든 세상의 구성요소와 서로 조화와 균형을 강조하여 이러한 상태를 건강하다고 말한다.

- 의학체계의 바탕이 동양철학

한의학은 학문의 근본바탕이 道家, 儒家, 佛家의 기본바탕으로 한의학의 근거인 陰陽五行, 生剋制化論, 臟象論, 整體論 등의 지식이 동양철학에서 비롯하였다.

- 생활의학

질병의 발생이 자신의 불량한 생활습관에서 기인(人自爲之 疾之所生)하므로 건강을 유지하는 양생의 이치를 알고 있는 聖人이 백성들에게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양생방법을 가르쳐서 백성들이 이를 생활속에서 지키고 따르도록 하여 건강을 지키도록 한다.

- 예방과 치료를 동시에

치료하면서 예방하고 예방하면서 치료한다는 관점이다. 즉 예방을 말할 때 분명하게 예방을 치료와 분리해 낼 수 없으며 치료를 이야기 할 때도 역시 명확하게 치료를 예방과 분리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약물도 치료할 때 치료하는 처방에 補하는 약물을 첨가하고 補하는 처방에 치료하는 약물을 첨가하여 인체의 기운에 손상되는 것을 막는다.

- 인체의 저항성(正氣)을 매우 중요시하는 특성이 있다.

(2) 한의과대학의 분명한 교육목표와 범위, 수준의 설정

최근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sup>40)</sup> 한의학교육의 방향을 분명히 하고 그 범위와 수준을 설정하였다.

① 교육목표

민족의학의 계승발전을 바탕으로 인류의 질병예방과 치료를 통하여 건강과 양질의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는 智德을 겸비한 의료인의 양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서

민족의학의 계승·발전 및 인류의 보편적 의학으로서의 승화, 도덕성과 윤리성이 강화된 교육, 한의학적 사고와 철학에 바탕을 둔 실력(이론과 경험 겸비)있는 한의사 양성과 최근 발달된 서양의학과 과학의 교육적 결합을 통한 폭넓고 다양한 교육을 실시한다.

② 구체적 목표

1. 한의예과

- 한의학기초이론, 동양사상과 철학의 이해
- 의료인으로서의 도덕성과 윤리성 함양 (생명존중사상 및 인성교육)
- 폭넓은 한의학 이해를 위한 한문 및 원전독해능력의 제고
- 종합적인 의료인으로서 역할을 위한 실질적인 서양의학과 기초과학의 기본교육
- 국제화시대에 적극적으로 적응하기 위한 외국어 능력의 배양

2. 한의학과

- 전반적인 한의학 학습을 통해 한의학적 사고와 체계의 심화 교육
- 다양한 임상실습을 통하여 전문 의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응용능력의 함양
- 기초이론, 실습(현장실습, 병원실습 포함)과 실험의 연결을 통해 한의학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응용할 수 있는 능력의 배양
- 지역사회에서의 역할 교육

③ 교육수준

의료인으로서의 충분한 도덕성과 윤리성을

갖추며 한의사로서 1차 보건의료 문제를 한의 학적으로 올바르게 적절한 예방과 치료할 수 있는 능력과 실력의 수준이다.

④ 교육범위

- 생명존중사상과 올바른 인성을 갖추며
- 한의학을 이용한 1차 보건의료 문제의 올바른 예방과 치료
- 좀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의료인 배출을 위한 서양의학과 기초과학의 연계 가능한 범위의 교육 등을 실시한다.

(3) 교육방향

- 생명존중 및 경외사상을 최우선으로 함 의학의 본질과 관련된 문제로 인간(환자) 존중정신을 바탕으로 도덕성과 의료윤리의식의 제고를 통한 질병과 고통의 본질을 이해하도록 한다.

- 문제해결형 교육

의사는 면허취득 후 평생 동안 인간의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맞닥뜨려야 하며 이를 자신의 모든 실력과 지혜를 동원하여 해결해야 한다. 가능한 간단하게 쉽게 그리고 완벽하게 해결 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재의 의학수준으로는 많은 한계가 있다. 그러나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의사는 그동안 공부하고 경험한 실력과 지혜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좀 더 나은 해결을 하기 위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를 위하여 창의적 또는 호기심이나 탐구적 사고와 더불어 종합적 접근과 의식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하여 최종적으로는 환자의 치료를 위해 처방을 選方이나 創方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다.<sup>41),42)</sup>

- 최근의학이론 및 기술의 적극적 수용 및 융합

의학은 시대가 요구하는 의학적 질문에 해답을 줄 수 있을 때 존재가치가 분명해진다. 아무리 한의학의 철학과 정신이 옳고 좋아도

이 시대인들의 건강과 질병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의학으로서 가치를 부여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의 이론이나 기술이 비록 서양의학이라 하더라도 한의학적 입장에서 적극 수용하고 융합하여 한의학화 하거나 아니면 치료 및 예방에 최선을 다해 활용하여 의학적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예방과 치료의학, 기초와 임상의학 강의와 실험·실습의 균형 및 연계 강화중요

졸업 후에 의학적으로 잘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적절하고 올바른 종합적이고 균형잡힌 교육과정인 매우 중요하다. 졸업 후에는 실기 중심의 의료행위를 하게 되지만 이러한 치료 행위를 잘 하기 위해서는 기초 및 임상의학의 예방과 치료의학의 균형 있는 공부 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한 현장감 있는 임상실습은 특히 중요하다. 인간의 지식 중 85%는 자신이 직접 보고 느끼고 만지고 경험한 직접적인 노력을 통하여 얻은 것이며 나머지 15%만이 교수의 강의나 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얻어진다는 것을 근거로 할 때 교육에서 실험 및 실습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 의학의 한계인식

서양의학은 초보적 과학수준이며 한의학은 경험의학 수준으로 서양의학이론 한의학 이론 의학수준이 매우 낮음<sup>43),44)</sup>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의학수준의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아직도 많은 환자들이 죽어가거나 고통 받고 있으며 오히려 인간의 질병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학적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게 하여 항상 겸손하고 친절하고, 환자를 사랑하고 중단 없이 노력하여 언제나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가르치며 환자내면의 치유력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환자나 가족들을 치료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의 교육이 필요하다.

위의 내용들을 참고 및 고려하여 한국 한의학교육의 표준 Model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것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한 대안 중의 하나는 국립대에 한의대를 설치하는 것이다.

(4) 구체적인 교과과정 설정

좋은 의학교육의 목적과 목표, 접근방법, 적절한 범위와 수준, 그리고 훌륭한 교육 방향을 설정했어도 이러한 것을 교육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자는 지금까지 의학대학 또는 한의과대학교육과 관련된 논의 내용을 가능한 모두 반영하여 완전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교과과정을 만들어 보았다. 한의과대학 6년 동안을 교육 측면에 가장 성공적으로 지내기 위한 방안은?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래도 최선 또는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다.

의학은 세상에서 가장 어렵고 복잡하고 힘든 분야이다. 이것의 이유는 의학의 연구대상

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연구에 참여하고 있지만 인간의 생명현상은 많은 부분이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았다. 연구하는데 그만큼 어렵다는 뜻일 것이다. 이러한 한계와 현실에도 불구하고 의료전문가들도 인간의 질병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 환자가 그렇게 원하고 있으며 의료인들은 무조건적으로 해결해주어야 할 책무가 있다. 이를 위해서 의료인은 실력과 경험, 인간성과 도덕성 등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요건들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학교는 그러한 요건을 갖추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중에서도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는 무대의 주인공이며 교수의 태도는 매우 중요하다. 필자가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올바른 의학교육(한의학 포함)방안에 많은 관심과 참여,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Table 5. New Curriculum for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분류	세부분류	관련 교과목
교양과목	의료인이 갖추어야 할 도덕성 및 윤리교육	의학윤리(의료윤리), 철학(동양 및 서양)
	의료인이 갖추어야 할 기초학문	(의학)생물학,(의학)유전학, 외국어(영어, 중국어 등), (의학)물리학, (의학)화학, 유기화학
기초의학	한의학	한의학개론, 인간학(생명학), 의학영어(용어), 한문(의학), 본초학, 생리학(한방), 병리학(한방), 원전, 의사학, 예방의학(양방)
	서양의학 및 기타	생화학, 생리학(양방), 병리학(양방), 해부학(신경해부학 포함), 조직학, 미생물학, 약리학, 면역학, 분자생물학
임상의학	前임상학	진단학(양·한방), 방제학, 경혈학, 예방의학(한방), 법의학, 지역사회의학
	한의학	내과(각), 침구과, 안이비인후과, 신경정신과, 상의학, 피부·외과, 부인과, 소아과, 재활의학, 상한 온병학, 임상특강, 임상실습(병원)
	서양의학 및 기타	진단·방사선, 전염병학(양방)
	기타	(병·의원)경영학, 보건의료법규

※ 각 과목의 해당 학년 및 학점 등은 제시하지 않음

## 2. 의학교육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중요한 요소와 한의학 교육의 올바른 방향

### III. 요약 및 맺는말

한국을 포함한 전지구적 측면에서 보건의료 분야의 현실과 문제점을 나름대로 진단해 보았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특히 의학 및 한의학교육에서 앞으로의 개선 및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1. 최근 세계 및 한국인의 보건의료 문제

1) 생활습관병과 전염성 질병의 증가, 대다수가 질병발생 전단계인 건강허약 상태이며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한 건강수명(삶의 질) 그리고 건강불평등이 주요 해결해야 된다.

2) 사회 및 자연적 요소와 숙주요인, 보건의료서비스 등 인간 內外部的인 모든 요인들이 인간의 건강 및 질병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 현대 의료의 한계 및 문제점으로는 의학의 학문적 수준이 매우 낮으며 기존의 의학이론도 완벽하지 않거나 의학적으로 잘못 접근하며, Darwin의학적 견해에 의하면 인간 자체도 완벽한 생명체로 설계되지 않은 등의 많은 현실적인 문제점이 있었다.

4) 서양의학이든 한의학이든 환자에 대한 의학적 관심을 단지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 전체보다는 아픈 부위만 관리하거나 치료해왔으며 육체중심의 의료행위와 교육이 진행되어왔다. 이외에도 교수와 병원 실습 여건의 부족, 분명한 교육철학과 목적이 없이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 1) 의학교육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한 요소

- 인간의 건강과 질병 뿐만 아니라 안녕, 복지, 봉사, 행복 등 인간의 생명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과 관심을 통해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측면으로 바꿀 수 있는 쪽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

- 이르기 위해서는 교육과정 중에 인간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 인간의 질병과 고통의 근원은 한 인간의 내면세계 및 삶 전체와 연관을 맺고 있으며 그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가족들, 사회 전체 및 자연, 민족, 문화, 종교, 정치 등의 단계를 인식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 2) 한의학 교육의 올바른 방향

- 한의학이 추구하고자 하는 의학정신과 한의학적 생명관의 중요성을 교육해야 한다.

- 한의과대학의 분명한 교육목표와 범위, 수준을 설정해야 한다.

- 교육방향을 생명존중 및 경외사상을 최우선으로 하여 인간의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형 교육이 중요하며 이외에도 최근의 의학이론 및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융합하고, 예방과 치료의학, 기초와 임상 연계이론과 실험실습의 합리적 균형이 중요하다.

## 참고문헌

1. 버나드라운 지음, 서정돈, 이희원 옮김. 치유의 예술을 찾아서, 몸과 마음. 2003
2. 전국외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예방의학, 계축문화사. 2004
3. 전우택 양은배, 인문사회의학과 의학교육의 미래,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3
4. Newsweek, 2003, Aug. 11
5. Bruce Aylward etc, when is a Disease Eradicable? 100 years of Lessons learned, American Journal of public Health. 90(10), 2000
6. Mary E Wilson, Infectious disease : an ecological perspective. BMJ, vol, 311, 1995
7. 宋爲民 羅金才, 未病論, 中慶出版社. 1992
8. 조맹제, 홍진표, 한국노인의 정신건강실태와 건강증진, -대도시 노인대상 연구- 집문당, 2000
9. 김창엽 엮음, 빈곤과 건강, 한울아카데미, 2003
10. 하워드 H, 하이야트지음 양봉민역, 위기의 보건의료 -1차 보건의료에 의한 제도개혁. 나남. 1994
11. World Health. 2000
12. Roger Detel etc. Oxford Textbook of public Health-The methods of public Health-4th.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13. 마사 o. 루스토노, 엘리사, J. 소보 지음, 김정선 옮김, 건강질병의료의 문화분석, 한울아카데미, 2002
14. Curtis D, Klaassen. Casarett & Doull's Toxicology 6th, McGrow Hill, 2001
15. 홍혜걸. 중앙일보, 2004
16. 진교훈. 의학적 인간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2
17. 프리츠포 카프라. 생명의 그늘(The web of Life), (주)범양사 출판부, 1998
18. R. 에스. G 윌리엄스지음, 최재천 옮김, 인간은 왜 병에 걸리는가, 사이언스북스, 1994
19. 로버트 S, 멘델존지음, 박문일 옮김, 나는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다, 문예출판사, 2000
20. 고와카 준이치, 마쓰바나 유이치 엮음, 이시재 최근영 최열 옮김, 생활속의 유해물질, 일월서각, 1996
21. 밥 셔틀콜리프. 박길성, 윤상수 옮김, 부평등한 세계를 바라보는 123가지 방법, 문화디자인, 2003
22. The world watch institute, 지구환경보고서 2004. 도서출판 도요새, 2004
23. 아서 클라이만, 비나 다스 외 지음, 사회적 고통, 그린비, 2002
24. 르네 듀보 저, 허정 역, 건강이라는 환상, 삼성문화문고 164, 1982
25. 에드워드 콜럽 저, 예병일 외 옮김, 의학의 과학적 한계, 몸과마음, 1994
26. 알프레드 토버 지음, 김진숙 옮김, 어느 의사의 고백, 지호, 2003
27. 신민교, 한의학 교육의 제고를 위한 한의과대학 교과과정연구, 원광한의학 5(1), 1995
28. 제한 동서학술원, 동서의학 28(3), 2003
29. 이선동, 한국한의학 교육의 발전방안, 제3 의학회, 2004 7월
30. 한의신문, 제 1116호
31. 사라 네틀턴 지음, 조효제 옮김, 건강과 질병의 사회학, 한울아카데미. 1997
32. 전우택 성명훈, 천병철. 의료의 문화사회학, 몸과 마음. 2002
33. 장희익 지음, 삶과 온생명, -새 과학문화의 모색, 솔, 2001
34. 에릭J, 카셀, 강신익 옮김, 고통받는 환자

- 인간에게서 떨어진 의사를 위하여, 코기토, 2003
35. 브라이언 터너 지음, 임인숙 옮김, 몸과 사회, 몸과 마음, 2002
  36. 린 페이지어. 이미애 옮김, 의학 과학인가 문화인가, 몸과 마음, 2004
  37. WHO, 건강의 정의
  38. 전국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양생학, 계축문화사, 2004
  39. 황제내경 소문.
  40.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육목표 수준및 범위. 2003
  41. 민족의학신문, 제 396호
  42. 민족의학신문, 제 411호
  43. 멜빈 코너 지음 소의영외 옮김, 현대의학의 위기, 사이언스 북스, 2001
  44. 로빈 베이커 지음, 문혜원. 유은실 옮김. 달 갈껍질속의 과학, 몸과 마음, 2003